

# 위기의 공화당, 상원 선거비용 283억원 투입

### 대선과 동시에 치러져

### 다수당 뺏길까 전전긍긍

### 트럼프 모금 중단에 타격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촉발한 당 분열로 위기를 맞은 미국 공화당이 대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상원의원 선거에서 선전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패배 직전인 공화당은 트럼프가 전체 공화당 득표율을 끌어내리지 않도록 최후의 수단으로 6개 지역에 상원 선거비용 2500만 달러(약 283억원)를 투입한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비용은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과 유대 관계가 있는 슈퍼 팩(PAC·정치활동위원회) 상원 리더십 펀드로부터 조달한다.

상원 리더십 펀드 회장이자 매코널 측근인 스티븐 로는 “공화당이 다수당 자리를 지키려면 가시밭길을 걸어야 한다”라며 “늘어나는 모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돈을 쓰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러 경합 지역에서 민주당 모금 실적이 공화당에 수백만 달러가량 앞선다.

현재 연방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트럼프의 성 추문과 공화당 지도부의 트럼프 지지 철회 등에 따른 역풍으로 다수당 지위를 뺏길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번에 상원 리더십 펀드에서 공화당에 투자하는 돈은 선거일인 내달 8일까지 대부분 공화당이 상원 의석을 차지한 지역을 방어하는 데 쓰인다.

공화당이 민주당과 박빙의 차로 경합을 벌이는 네바다 주에 가장 많은 750만 달러를 투입한다. 네바다 공화당 상원 후보인 조 맥은 트럼프 지지를 철회하고서 입지가 좁아져 당의 격정거리가 됐다.

그 밖에 펜실베이니아, 인디애나, 노스캐롤라이나, 뉴햄프셔, 미주리 등 공화당의 승리가 아슬아슬한 지역에 TV 광고 등



**트럼프 성추문 풍자 퍼포먼스**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트럼프 타워 앞에서 미국 공화당의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를 흉내낸 분장을 한 연기자가 비키니를 입은 모델들과 퍼포먼스에 나서고 있다. 영국 출신의 작가 앨리스 잭슨이 기획한 이번 행사는 그녀의 새 작품 ‘프라이빗’(Private) 홍보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에 쓰일 선거비용을 지원한다.

이 와중에 트럼프가 고액 후원금 모금 행사를 중단해 상원의원 선거에 힘쓰는 공화당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5일 보도했다.

WP는 트럼프 캠프 재무책임자 스티븐 나친을 인용해 트럼프와 공화당 전국위원회(RNC)의 공동 모금위원회 트럼프 빅토리가 지난 19일 대선후보 3차 TV토론이 열린 라스베이거스에서 공식 후원금 모금 행사를 마지막으로 열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트럼프의 결정은 트럼프 빅토리를 통해 지난달 말 기준 4000만 달러(약 453억 원)를 모은 RNC의 자금줄을 끊는 것이라고 WP는 설명했다.

RNC는 당 전체 공천 후보들을 위한 유권자 동원에 필요한 자금 상당수를 트럼프 빅토리에 의존해왔다. 공화당의 분열은 유권자들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NBC뉴스와 서베이링커가 지난 17~23일 미국 성인 3만2225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오차범위 ±1%포인트)에서 응답 유

권자의 74%는 공화당이 분열됐으며 이 상태가 선거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공화당이 지금 단합됐다고 답한 응답자는 4%에 그쳤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클린턴은 지지율 46%를 얻어 트럼프(41%)를 5%포인트 차로 앞섰다. 자유당 게리 존슨 후보는 7%, 녹색당 질 슈타인 후보는 3%를 각각 차지했다. 양자대결에서는 클린턴과 트럼프의 지지율이 각각 50%, 44%였다. /연합뉴스

## 힐러리, 승세 굳히기...상원까지 장악 노린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이 오는 11월 8일 대선의 단순한 승리가 아닌 ‘압승’, 나아가 상원 다수당의 탈환을 노리고 있다. 이를 위해 클린턴 캠프가 ‘다면 전략’에 착수했다 ABC방송이 25일(현지시간) 전했다.

그 핵심이 첫째 전통적인 공화당 성향의 보수적 주를 최대한 많이 이겨 선거인단 ‘매직넘버’인 270명을 크게 넘기는 것, 둘째 상원 장악을 위한 선거운동에 집중하는 것 등이다.

대선 2주를 남겨둔 시점에서 클린턴 캠프는 경쟁자인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를 두 자릿수까지 따돌리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이같이 방향을 잡았다.

클린턴 캠프의 브라이언 팰런 대변인은 ABC방송에 “가능한 큰 격차로 이기고 싶다”며 “(집권 후) 일을 제대로 하려면 그런 것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클린턴의 대선공약을 이행하는데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특히 트럼프가 이번 선거가 클린턴과 미디어가 한편이 된 ‘선거 조작’이라는 주장을 퍼는 터라 압승을 통해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클린턴 캠프의 생각이다.

클린턴 캠프는 3차례의 토론 완승 이후 ‘압승 전략’에 집중했다.

먼저 클린턴은 24일 뉴햄프셔 주 유세에서 민주당 상원 후보인 매기 하산과 민주당 소속 현직 주지사의 지원에 주력했다. 그는 지난 주말에는 노스캐롤라이나 주 유

세에서 팻 맥크로이 공화당 주지사와 팻 투미 펜실베이니아 공화당 상원원을 “도널드 트럼프와 여전히 맞서기를 거부한다”며 공격했다.

또 클린턴 캠프는 대표적인 공화당 주인 애리조나나 유타 주에 화력을 집중했다. 애리조나 주의 경우 광고 투입물량을 늘렸다가 하면 클린턴의 ‘비밀 병기’로 떠오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를 찬조연사로 투입해 표심을 호소했다.

클린턴은 애리조나를 한두 차례 더 찾아 유세를 펼치는 등 남은 2주간 공격적 선거운동을 할 계획이다.

또 뉴욕 브루클린 선거 캠프의 직원 여러 명이 유타주로 보냈다. /연합뉴스

## 美 정보국장 “북한 핵능력 제한이 현실적”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25일(현지시간)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으며 현실적으로 핵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미 정부의 큰 원칙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클래퍼 국장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CFR) 주최 세미나에서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클래퍼 국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북한을 비핵화하겠다는 생각은 아마도 가능성이 없는 것(lost cause)”이라면서 “핵무기는 ‘그들의 생존 티켓’(ticket to their survival)”이라고 단언했다.

클래퍼 국장은 2014년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기자 2명의 석방을 위해 방북했던 것을 거론, “내가 북한에 가 봐서 북한의 입장에서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좀 안다”면서 “그들은 포위돼 있고 피해망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그들의 핵무기 능력을 단념시키려는 생각은 애당초 성공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면서 “아마도 우



클래퍼 국장

리가 희망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일종의 제한(cap)”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아마저도 우리가 그냥 요구한다고 순순히 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중대한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더 이상 핵능력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현재 수준에서 핵 동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으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 북한의 핵보유국을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분명한 입장 표명 없이는 대화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끝내기 위해 대북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도 “미국 대북정책의 목표는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연합뉴스

## 하얼빈서 안중근 의거 107주년 추모행사

안중근 의사가 조선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저격한 지 107주년이 되는 26일 저녁 현장이었던 중국 하이퉁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시에서 의거의 뜻을 되새기는 추모행사가 열렸다.

한국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와 회원 등 40여 명은 이날 오전 하얼빈시 하얼빈역에 걸립된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찾아 안 의사의 회생정신과 동양평화사상을 기렸다.

함세웅 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안 의사는 민족정기의 표상으로 높이 평가받는 독립운동가이자 사상가”라며 “의사의 독립과 평화정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계승하는 일은 민족정기 확립과 민족통일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어 안 의사가 의거 후 끌려갔던 일본총영사관 자리와 하얼빈 체류를 도왔던 교민 김성백 씨 집터, 안 의사 유목비가 있는 자오린(兆麟)공원 등을 돌아왔다. 하얼빈시조선민족예술관은 이날 조선족 제1중학에서 ‘하얼빈에 안중근 의사가 머문 11일간’을 주제로 당시 사진, 그림 전시회를 개막해 1주일동안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얼빈역 내 안중근 의사 기념관측은 “오늘 안 의사의 거거임을 맞아 한국인과 중국인 40~50명이 오전 기념관을 찾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일본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 도입 검토

일본 정부가 남성의 육아 참여를 높이고자 육아휴직 중 일정 기간을 남성에게 할당하는 ‘파파 쿼터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6일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은 현행 육아·간병 휴직법상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이 중 일정 기간을 남성

이 사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일본의 육아휴직률은 여성이 81.5%지만 남성은 2.6%에 그쳤다.

연말까지 이러한 내용을 논의한 뒤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경기도 인천 오피스텔**  
인천 호구포역 1분 **분양**

임대 걱정없음 / 실투자 대비 높은 수익률  
매가 1억 1천 → 대출8천 → 임대 보1천/월50만

▶ 실투자 500만에 오피스텔 1채

경기도 화성 A.P.T  
화성 시청 2분 **분양전환**

화성 시청역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30분 **남양뉴타운 개발도시**

▶ 1천만 투자 34평 아파트 1채

010-7384-7800    010-6670-9800

**첨단 8층 빌딩 매매**  
북구 오룡동(첨단삼성전자 정문 앞) 메가박스, 정부합동청사 1분

▶ 감정가 55억  
▶ 매가 38억  
▶ 대출 27억 가능  
월수익 3,000만 보증금 6억  
▶ 실투자 5억

토 500평, 건 904평  
(연구실, 본사건물, 경영컨설팅 사무실 최적함)  
최고급 시설 / 주차 완비(60대)  
※ 분할 등기 가능 ※

1층 (상가) 120평 (식당 입점준비)  
2층~7층 (룸 56개) 오피스텔 및 사무실  
8층 (41평) (고급룸 2개 스카이라운지) 전망최고

010-7384-7800    010-6670-9800

**동구 수기동 사무실 임대** **6층**

제일오피스텔 20층 중 6층  
45평  
천변로 전망좋은 (약 4평 저운점질방)

사무실 최적함 / 주차 완비 / 즉시 입주  
▶ 보 2천 월 60만

<b>첨단 사무실 임대</b> ① 보 1,000만 월 40만 (투룸형) (주차 1대 가능) (전세 7천 월 5만원) (전용 12평, 분양평수 16평)	<b>(1층) 사무실 임대</b> <b>북구 우산동</b> 구호전 / 안보회관 사거리 시설완비 / 즉시입주 / 위치 최고 ▶ 보 1천 월 50만
② 보 500만 월 35만 (투룸형) (주차 1대가능) (전세 6천 월 5만원) (전용 9평 분양평수 13평)	

010-6834-4800    010-6832-9700